

(종교 개혁과 개인주의/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법치주의)

성경말씀: 살후3:6-12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 인간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파노라마 시각

6,000년간의 인류의 역사? 성경을 통해 무엇을 보는가? 인간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천지 창조 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타락, 천지 창조: 특별히 여섯째 날 인간 창조, 하나님의 형상

가장 큰 목적: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리려 함(엡3:10)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무한한 가치를 주셨다. 아담의 경우 자기 앞을 지나가는 모든 짐승에게 이름

무한한 지혜, 무한한 발전 가능성, 존 파이퍼: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큰 만족과 더불어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벧전5:8).

아담과 이브 접근, 타락, 죄, 그 이후로 인간의 탐욕을 부추김, 노아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배도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창6:5), 노아의 대홍수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민족들이 형성됨, 국가의 존재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 사형제도 확립(창9:5-6), 법치,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 실현 불가능

마귀가 인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해 온 일(고후4:3-6)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됨, 그분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맑은 정신, 옳고 그른 것 판단

유대인과 이방인

노아의 홍수 이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메시아 계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500년 동안

율법을 주심, 하나님의 백성의 법치, 질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완전한 법,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 세상 살아가는 법까지 다 드러남

AD 100년경에 성경 완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남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마귀의 종교 구축, 바빌론, 이집트, 메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동쪽의 인도

중국 등 종교 개혁 전까지, 20세기 전까지 4000년 이상 마귀 숭배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예수님 이후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복음 선포: 복음이 이교도 세상에 들어가 우상 타파(살전1:9-1)

마귀의 극심한 박해, 네로(AD 64), 도미티안, 디시우스, 콘스탄틴의 밀라노(AD 313)까지 약 250년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타키투스의 증언: 'immense multitude',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그러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성장, 하는 수없이 기독교 공인, 정치와 종교의 혼합, 국가 교회

교회교의 탄생,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나가게 됨, 마귀의 무장 해제 작전

그 이후로 이교도 세상에는 종교 개혁까지 약 12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

천주교와 전체주의

천주교 국가 교회 체제: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한 국가 혹은 교회 권력이 국민생활을 간섭·통제하는 사상 및 그 체제

모든 것이 천주교회의 통제하에 이루어짐: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교황)의 정치/종교권력이 국민의 정치생활은 물론, 경

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게 됨

천주교회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법, 성경이 없으니 빛을 볼 수 없음, 마귀의 적극적인 개입

기독교 문명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대다수 국가가 이런 형국

중국, 인도, 대다수 아시아, 북남미, 호주 등은 말할 것도 없음: 무지의 흑암

완전히 마귀의 커튼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함

종교 개혁과 무지 탈피

역사의 이런 시점에서 1517년에 루터의 종교 개혁, 성경이 보급됨

시119:30,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성경의 조명이 있자 사람들은 드디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함.

로마 교회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나서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존재
예수님 표현대로 마16:26, 온 세상보다 귀한 존재, 개인주의(Individualism)

천주교회의 하향 평준화된 평등한 존재(부속품)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며 발전하는 존재
개인주의(네이버 지식백과): 개체로서의 개인이 사실상 사회보다 선행하여 실재(實在)한다는 주장, 가치
면에서 또는 권리상 개인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주의는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 유럽에서 태어난 사상 형태이다. 우선 종교 면에서는 중세적인 교회중심적 체제에 반대하여
각 개인의 신앙의 내면화(內面化)를 주장하고, 가톨릭의 보편주의(普遍主義)에 대항해 개인주의적인
반역을 꾀한 프로테스탄티즘으로서 나타났다.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드디어 '영혼의 자유'라는 말이 파급되며 실행되게 이르렀다.

“성경을 모를 때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했으나 성경의 빛이 들어오니 나 자신이 심히 소중한 존재”
그 결과 소명(vocation)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교회 성직자의 일만 하나님의 일
그 외 모든 사람의 일은 세속 일, 속된 일, 천한 일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빵을 굽는 사람, 하나님의 일, 정직하게 성실하게 빵을 굽는다. 하나님의 일이므로 더럽게 만들거나
재료를 속일 수 없다. 돈을 모을 수 있다. 자유롭게 직업선택, 내 집 마련, 내 사업
인간 세상에서 드디어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됨: 그전에는 교회와 국가의 통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창3:17-19)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농촌을 떠나 도시들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상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함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 의식
드디어 유럽의 국가들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민주주의 실현: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 궤멸,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 반포, 1688년 명예혁명
1776년 미국 독립혁명, 미국 헌법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
명기함,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진정한 의미의 시민 혁명이 아니라 시민 폭동에 가까움
성경에 근거한 종교 개혁의 산물: 1. 개인주의, 2. 자유시장 경제, 3. 민주주의
개인주의는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 존중 중의이다.

그런데 개인주의를 그대로 두면 이기주의로 인해 사회 공동체가 멸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시민의식에서 나온 것이 바로 확고한 법치주의이다.

국가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회생활을 하라.
개인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려면 근간인 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가 깨지고 선동하는
무리들에 의해 균중 민주주의가 되면 국가와 사회가 무너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병 파동, 허위
사실에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갔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권고(살후3:6-1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권고나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다.

1. 질서 없이 걷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가정, 사회, 교회, 국가 모두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
2.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행할지 안다(7). 가정, 사회, 국가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되는지 우리 스스로 안다.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3. 바울의 말: 질서 없이 걷지 아니하였다(7).
4. 공짜 빵을 먹지 아니하였다. 부지런히 수고하였다(8).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
5. 내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을 보였다.

며칠 전 대학 후문, 학생들 선동, 매달 공짜로 10만원 주는 법 만들 테니 서명하시오.

공공 일자리 81만개, 민주 국가는 작은 정부를 꾸려야 한다. 국가는 질서만 유지하면 된다. 그 질서 안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경제 생활하게 하는 것, 국가가 국민을 먹이려 하면 또 다시 전체주의, 보편주의로 넘어가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국가가 힘이 있다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면 안 된다.

요미우리 TV, 일본 인구 1억 2천만, 공무원 수 30만 명, 한국 인구 5000만, 81만 명 그리스, 스페인,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과정을 그대로 답습

6. 성경의 법칙: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 말라.
7. 바울의 마지막 명령(11-12):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국가가 먹여 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것 대적, 블라인드 채용 불법: 평등주의는 국가 사회 발전 저해, 우수한 사람이 나오도록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회, 자유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 삼성 전자 세계 1위, 자랑스럽지 않은가? 반 기업 정서 우리는 반대, 종교 개혁 정신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

시민 의식의 성장과 국가 부흥

종교 개혁을 통해 개인의 소중함, 개인의 가치,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확산: 앵글로 색슨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며 황금기를 누림

영국 군대가 가는 곳마다 민주주의 확립, 대표적인 국가 인도: 가난해도 법치, 민주주의 국가 앞으로 가장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후예들이 세운 미국: 자차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국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다. 죄악 속의 인간이 하나님의 가치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국가, 반미주의자들도 아들딸은 다 미국 보낸다. “왜?” 앵글로 색슨족의 발전 이유: 1. 성경, 2. 개인주의, 3. 자유시장경제, 4. 민주주의, 5. 확고한 법치주의

객관적 평가

전 세계지도를 펴고 국가들을 살펴보자.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특히 일본은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아시아의 모든 나라보다 100년 이상 빨리 개인주의,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확고한 법치주의 확립

가장 못 사는 나라: 중국, 러시아(공산주의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천주교 국가), 버마, 태국(불교 국가), 가장 못사는 나라: 북한(김일성 주체사상, 획일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데 친중, 친러, 친북/중북 해야 하겠는가?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고 살아야 한다.

종교 개혁 이후 모든 것이 변하였다.

1. 프로테스탄트 교회 발전: 천주교의 쇠퇴,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등 확산
특히 미국에서 침례교 발전: 프로테스탄트들은 천주교에서 나와 여전히 교단(감독, 유아세례), 교권주의
미국에도 처음에 청교도들의 개혁교회, 루터교, 천주교 등이 들어감
그러나 후에 들어간 침례교회가 대세를 이루게 됨: 형제/자매, 회중 통치, 민주주의 체제에 가장 적합함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침례교회가 가장 큰 규모, 하나님의 뜻
2. 음악의 발전: 획일적 천주교 음악, 헨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3. 문학의 발전, 4. 기계의 발전(산업 혁명)
5.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서

마귀의 반격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맞은 마귀는 필사적으로 인간을 공격한다.

1. 다윈의 진화론(1859): 생존 경쟁에서의 적자생존에 의한 종의 기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는 모델,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

2. 마르크스의 공산주의(1867): <자본론>, 사회주의혁명과 계급투쟁, 부르주아 혁명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전술, 노동자와 농민 동맹의 필요성, 혁명에 있어서의 부르주아 국가기관의 파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구상 등이 거기에서 만들어졌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로 구명하고 절대악으로 규정,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지상 낙원 약속
3. 성경 부인(1881):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영국개역성경, 천주교 사본이 바르다.
4.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 대규모 이단 생성
5.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1918), 레닌 추종자들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지상 낙원 공산주의 국가 실현, 1991년에 완전한 실패, 73년 만에 붕괴

우리나라

1. 일제 강점기 이후 주님의 은혜로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 국가 확립, 그 당시 국민들의 7-80퍼센트가 사회주의/공산주의 염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기초를 확고히 세움, 1. 개인주의(민족이 아니라 개인 먼저), 2. 민주주의, 3. 자유시장경제, 4. 법치
2. 6.25 전쟁을 막아내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경제 10대 강국으로 부상
UN 연설 시 6.25는 내전, 촛2불 혁명 운운, 아니다. 6.25는 내전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불법 집단의 불법 남침이다. 전 세계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항하여 싸우고 이긴 전쟁이다. 트루먼의 미국을 비롯해서 16개국 200만 명이 하나님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고 결국 가치를 지켜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1.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투표를 통해 내가 원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가능한 한 기독교 정신을 지켜 주는 정부,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공산주의/사회주의 반대, 종북/친중/반미 반대하는 정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다.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바르게 판단하고 투표해야 한다. 연구해야 한다.
2. 바르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의 도래, 적그리스도의 세상, 언론 통제
10년 전부터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 언론 선동 및 조작의 극대화, 기존 신문/방송은 이미 거짓 세력이 잡아 버렸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문, 유튜브 채널 등을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야 한다.
3. 2017년 10월 31일, 루터의 종교 개혁,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법치주의
이것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이다.
이것에 찬성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조금 더 평안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딤후 2:11).
4.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로 끝나면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마5:13-16)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한 자들이 정권을 쥐지 못하도록 투표로 막아야 한다.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되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를 세우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이다.
1. 개인주의, 2. 민주주의, 3. 자유 시장 경제, 4. 법치주의,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한 하나님의 가치